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20-27

심주환 선교사님

<한 가지 소원> 이 찬양을 예배 전에도 했었는데, 내가 눈물 많은 사람이 아닌데 눈물이 난다.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움직였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기도했다. 저 고백 그대로 랩넌트들에게 응답되었으면 좋겠다. 오늘도 신앙을 고백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번에는 일본어로 가르쳐 드리겠다. "イエスは? キリスト(이예스야? 키리스도). 私は? 神の子供(와타시와? 카미코코). すべての問題は? 終わり(스베테노문다이와? 오와리)!" 히로시마 침사랴교회에서도 설교를 시작할 때 본교회처럼 항상 신앙고백을 하고 시작한다. 제일 기쁘고 신나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오다. 그것을 보고 넷째 성권이 오양알을 따라한다. '끝!'은 꼭 한국어로 하더라. (웃음) 오늘 오후 중교등부 헌신예배 말씀을 부탁받고 목상하는 중에, 어떤 말씀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해야 하겠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 내가 중3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만났는데, 내 간증을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은 적을 것이 없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란다.

1. 전도자의 간증

나는 1982년, 내가 7살 때에 오금중앙교회 제1성전에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는 여기에 아무 것도 없었다. 101동, 103동 부근이 내가 태어난 집이고, 그 언덕 쪽이 대머리산인데, 그 7부능선 끝에 오금중앙교회 제1성전이 있었다. 왼쪽은 내가 흘렀고, 그 밑으로는 다 진창이었다. 옛날부터 오금동에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것이다. 부인 없이는 살어도 장화 없는 못 산다는 지역이었다. 나는 어릴 때는 몰랐다. 늘 질척질척 다니는 게 좋았기 때문이다. 그런 동네에서, 여름성경학교를 시작하면, 선생님 아이들 다같이 복 치고 뽕과리 치면서 모았는데, 나도 그렇게 유치부 때부터 신자가 되었다. 먹을 것만 얻어먹으러 다니다가 한동안 또 교회를 안 나가고, 누님 따라서 다른 곳에도 가다가, 누나가 오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하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방이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내 친구가 아침에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주환아, 교회가자!" 그래서 오금중앙교회에 정식으로 다니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놀 만한 곳이 아무 데도 없었다. 나는 유치원도 못 나온 학벌이다. 남들은 백합유치원에 다녔는데, 최신주 집사님도 거기를 다녔다. 그게 그렇게 부러웠다. 나도 유치원 좀 갔으면 좋겠다 싶었다. 그렇게 놀 곳이 없었으니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웠다. 먹을 것도 주고 놀 수도 있었으니까. 그때 나를 지도했던 선생님이 아직 여기에도 계시면서 어린이부 교사를 하고 계신다. 그리고 지내다가 중학교 때가 되었는데, 수련회가 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다. 기도원을 여기저기 찾아다녔다. 그때는 형들, 누나들을 따라다니는 자체가 즐거웠다. 수련회 가면 밤새 놀고, 친로역정을 하면서 담력 체험도 한다. 그게 너무 신나고 좋았다. 그러면서 중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 그때 중교등부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여름에 두란노 경배와찬양 3기 수련회에 같이 갈 아이들을 모집했다. 내가 찬양을 참 좋아했기 때문에 신청해서 가게 되었는데, 찬양만 계속 하고 메시지도 별로 하지 않았다. 3, 4시간 찬양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게 청소년수련회였다. 셋째 날 저녁인데,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굉장히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입에서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회개의 기도를 아무리 쏟아내도 끊어지지 않았다. 하염없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었다. 4, 5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엎드려 하나님과 1:1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네가 네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겠나?" 그때 선뜻 고백하고 서원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전 세계를 다니고 싶습니다. 찬양선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때는 선교사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랐다.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사람 정도만 생각했다. 앞에서 인도하시던 하용인 선교사님, 하스데만 선교사님이 너무 기록하고 멋있어 보였는데, 저분 같은 찬양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런 오금동 촌구석, 별 볼 일 없는 집안, 아무런 배경이 없던 신분의 사람이었다. 우리 집은 연탄배달을 하고 있었다. 그게 참 부끄러웠고, 상처가 되고, 창피했었다. 그런데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다.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왜 나만 교회를 다니지.'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전 세계를 다니는 선교사로 서원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두고 생각하며 마음에 담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공부도 썩 잘 하지 못했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갈 자신도 없었다. 그래서 일찍 돈이나 벌이라 하는 부모님 이야기를 듣고 공업고등학교를 가게 되었다. 왕복 세 시간 거리를 계속 등하교를 하면서, 기독교부에 들어가게 되었다. 들어갔는데, 찬양하는 부서니까 얼마나 좋나? 그 학교 동아리가 초교과 선교단체로 발전했고, 나는 거기에서 기타리스트로, 싱어로 활동하다가, 부(副)리더와 리더로 사역하면서 10년 동안 훈련을 받게 되었다. 내가 중3 때 하나님께 찬양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는데, 하나님은 신

대방에 있는 서울공고로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선교단 리더로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내 기도, 내 서원, 내 평생의 기도제목을 기쁘게 받으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는 중에 고3 때에는 취업을 하게 되었다. 내 학과가 광산과였다. 굴을 파고, 폭파하고, 자원을 캐고 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자격증이 있으니까 고3 때부터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땅을 파는 일이 있으면 어디든 가는 일이었다. 땅을 6개월 동안 파면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 회의감이 들었다. '내가 왜 땅을 파고 있지? 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고,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땅 파는 일을 계속 시키시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데 사회생활이 만만치 않았다. 같이 일하는 형들은 밤만 되면 술이었고, 주말만 되면 이상한 곳에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것이다. 제일 친한 형들은 나도 그 현장에 빠뜨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술 한 잔만 먹이려고 했다. 나는 당구장조차도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결단했다. '저는 절대 타락하지 않고, 주일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일은 주일에도 쉴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나는 작업복을 입은 채로, 가까운 교회에 땀 흘린 모습 그대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는 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은 내가 결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나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 오늘 찬양의 고백이 항상 내 안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을 품고 기도했다. 가족, 지역을 놓고 기도했다.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을 지내면서, 방학 때에는 항상 새벽예배를 나왔다. 학교가 시작되면 학교가 너무 머니가 새벽에 교회 왔다가는 학교에 갈 수 없어서, 학교를 마친 후에 항상 교회에 들어서 기도하고 갔다. 한 시간씩 제2성전 유아실에서 무릎 꿇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두고 기도했다. 여러분은 많이 바쁠 것이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지켜야 할 것도 많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은 성격도 떨어지지 않게 지켜야 하고, 친구관계도 어긋나지 않게 지켜야 한다. 어른들은 가정도 지켜야 하고 돈도 안 나가게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고3 때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기로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자산이었던지 지금이야 알게 된 것이다. 지금 여러분이 청소년 시기에, 좋은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하겠지만, 믿음과 신앙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 여러분이 무엇을 노래했는지 아는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고백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더 복음을 깨닫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를 원한다 하는 고백은 세상 누구도 못 하는 고백이다. 허버트를 나온 사람도,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고백을 여러분이 했다. 청소년 때 여러분이 한 고백을 평생 잊지 말고 간직하시기 바란다.

2. 전도자의 부탁

(1)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다. 내가 말씀을 놓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는데, 방학 때마다 성경통독 훈련을 했다. 일주일, 열흘, 2주일 정도, 아침을 먹고 모여서 하루종일 성경만 읽고 흠이 되는 것이다. 나도 2년 동안 참여하면서 성경 통독을 했다. 그게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여러분, 성경 1독을 청소년 시기에 한 분이 있는가. 나도 2년 동안 일을 하다가 대학에 늦게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더 없더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시간이 더 없다. 지금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면서 고3 때에는 무슨 훈련을 했는가 하면, 합동측 김영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성경정독집이라는 책이 있었다. 구약 3권 신약 2권이였다. 성경을 읽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기도문을 쓴 다음에 마치는 책이었다. 전에 성경 통독할 때는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하나씩 성경 한 자 한 자 깊이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어떤 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나는 이렇게 답했다. "성경이 유일 한 답입니다. 성경 속에 모든 답이 있고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간증한 것이다. 여호수아 1:8에도 말씀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평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되면 네 길이 평탄케 된다."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조금 더 나은 직장,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오늘 기준을 바꾸시기 바란다. 여러분의 평탄한 길은 말씀 속에 있다. 다윗이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의 기준을 말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2절에,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을 읽으라. 읽고 듣고 또 지켜 행하라. 요한계시록 1:3에 기록된 대로,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되시기를 바란다. 내가 한국에 나올 때마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이게 너무 즐겁다. 너무 부럽다. 사실 목사님이 듣고 계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혼나지만, '있을 때 더 잘 할 걸' 하는 마음이다. (웃음) 왜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로 물질을 헌신하시는지 깨닫게 된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나는 선교로 보답하려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와 같은 선교사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된다.

(2)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전달하고 싶은 것은, 절대로 기도를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종교적, 율법적, 신비적 기도를 했는 지도 모른다. 그냥 하라고 하니 소리치려고 따라했다. 나는 중3 때 복음을 체험한

후에는, 혼자서, 또 친구들과 기도원을 찾아가다. 3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기도 했다. 지금은 기도원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3일 밤낮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했다. 고3 1년 동안 새벽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육신적 동기가 많았지만 기도는 놓치지 않았다. 대표기도를 한다 하면,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할 때 나는 앞서서 하고 그랬었다. 내가 고3때에는 매주 모이는 고3 학생이 지금 중고등부 전체보다 더 많았다. 그 중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잘 했다. 이 군계 장로님이 당시에 집사님이었는데, 다른 애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었다. “너도 주 환이처럼만 해라.” (웃음)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니가 부끄럽지만, 자랑해도 될 것 같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새벽제단, 청소년들이 채워라. 학기 중에는 힘들겠지만, 방학 때에는 스마트폰 늦게까지 들여다보지 말고, 일찍 자고 일찍 나와서 새벽에 기도 해 보라.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맨 뒤에서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잠들어 버렸다. 그때 가위눌림이 오는 것이다.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하다가 잤다. (웃음) 시커먼 것이 올라와서 누르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고,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는데도 입이 안 움직였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기도하고 가시는 권사님의 발걸음 소리 덕분에 깨고 그랬었다. (웃음) 그런 식으로 기도를 체험했었다. 기도 하시기 바란다. 기도의 규례를 세워라. 정시기도 하는 분이 있는가? 정시로 스마트폰은 들여다보는데, 하루도 안 농치고 게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일본에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포켓몬고 덕분에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해방받은 게 아니라 가장 세계로 더 빠져드는 것이다. 절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 쫓아가다가 사고 난다. (웃음) 정시로 기도하라. 나도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봤는데, 요즘 게을러졌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다. 사모와 아이들이 한국에 있는 동안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또 게을러졌는지 모른다. 같이 있을 때는 거룩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여러분, 뭐 하는가? 기도 안 하지 않나. 말씀 안 보지 않나. 기도하시기 바란다. 무시로 기도? 다 뺏이다. 생각 날 때마다 한다? 생각이 나는가? 그 생각,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빼앗긴다. 그 마음, 생각을 지키라고 했는데, 스스로는 지킬 힘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을 맡기고 기도하라. 빌4:6-7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나. 기도하시기 바란다.

(3) 그리고 전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마음에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아가 차원 램프가 대표기도를 하면서 각 학교에 전도할 수 있는 다락방 시스템이 생기고 전도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 않나? 과연 그런 기도를 하는 학생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는 램프가 주변에 몇 명 있을까? 없다. 여러분이 각 학교에서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 학교에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란다. 히로시마에는 다락방 교회가 우리교회 밖에 없다. 처음에는 많은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면서 히로시마를 복음화하려고 했다. 그런데 한 번 이단 소문이 나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남의 교인 빼앗아가는 교회라고 소문이 나니까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사단은 그만큼 전도만 못 하도록, 생명만 못 살리도록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도자로 서시기 바란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3:16에,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다. 디모전서 2:4처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가장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4:14에, 언제 끝이 오는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고 했다.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것이다. 온 천하, 모든 민족, 땅 끝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나는 참 감사한 것이, 본교회에서 몇 년 후원해 주시다가 말했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자립하고 독립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자립은 커녕 아이가 넷이나 되는 데, 또 먹기는 얼마나 먹는지. 성지는 나보다 더 먹는다. 한 달에 쌀만 20kg 이상을 먹어야 한다. 먹고 사는 것, 후원해주는 것, 선교활동 하는 것, 처음에는 내가 걱정했었는데, 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속이 편했다. 내가 걱정할 것이 없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간 첫 해에, 내가 싸워서지고 간 돈 2천만 원을 본교회에 헌금했다. 헌당을 위해서 쓰시도록 헌금했다. 0에서 시작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려고 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내가 2천만 원을 바라보고, 후원 끊기고 선교 안 되면 이것이라도 붙잡아야지 하는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매달 주시는 선교비로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데 심일조를 할 수 있는 성도도 이제는 생기기 되었고, 함께 말씀운동 속에 있던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제 히로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방향을 맞추니까 되어지는 일이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 대학, 직장을 다 책임지신다. 다 해결하신다. 우리교회에 오신 집사님은 평강한 엘리트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히로시마대학으로 온 것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가기로 되었었는데, 가기 하루 전에 거절하고 히로시마대학에 오게 되었다. 이유가 뭐가 했더니, 일본을 살리겠다는 것이었다. 10년 간 일본에서 유학을 했던 분이라, 일본을 여기에서 살리겠다 하는 결단을 하고 온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을 안 지시겠는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란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서 5천 명을 먹이셨고, 칠병이어서는 4천 명도 먹이셨다. 이 예수님을 쫓아가면 살겠구나 하고 무리들이 생

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살 것이다.” 이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 육신을 쫓아왔던 무리들은 다 떠났다. 육신을 바라보다가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란다. 우리 동기들이 양경아 집사님, 김석재 집사님인데, 이분들은 늦게 오신 분들이었다. 우리 고3 때 있었던 그 27명이 지금은 아무도 교회에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인하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라. 대학도 직장도 별로 소용이 없다. 영적 서밋, 엘리트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공해야만 서밋인가 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서밋에 올라가게 된다. 노아가 방주를 산에 지었다. 미친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홍수가 님을 때, 세상 어떤 산보다도 높이 올라간 서밋은 노아였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타고 있으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느 날 제2롯데월드보다 높은 정상에 세우실 것이다. (웃음) 세상 성공, 물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자기 중심을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란다.

3. 마음을 지키는 응답

본문을 보면 이것을 두고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 (1) 20절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다.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가?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다. 로마서 10:17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라.
- (2) 21절에, 눈에, 마음에 이것을 새기라고 했다. 여러분의 생각, 마음이 결국 가치관 이요 인생관이요 미래관이다. 마음에 들어있는 것으로 미래가 결정된다. 그것에 여러분은 무엇을 담으시겠는가.
- (3) 나는 한국에 올 때마다 놀라게 되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은 무서워서 나도 눈을 못 마주치겠다.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욕이 절반 이상이다. 말하는 것, 보는 것, 발로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더라. 오늘 말씀처럼, 더욱 네 마음을 지켜서, 말의 응답, 눈의 응답, 발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24-26절). 복음만 말하라. 복음의 눈으로만 현장을 보라. 현장으로 가는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만 되시기 바란다. 나는 내 삶에 대한 간증을 하고 싶었고, 청소년 시절의 삶을 나누고 싶었다. 타협하지 마라.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 생각이 무너져서 당한 것이다. 마음에 담지 않고 귀로만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귀 대장이 와서 속이고 꾀신다고 해도 속지 말아야 했는데, 마음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창세기 6:5에도, 왜 홍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물질 중심이었지만, 사람들의 생각, 마음,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고 했다. 마음이 무너지 시대, 항상 악한 시대가 되었다. 지금이 그런 시대다. 이런 때에, 청소년들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란다.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가? 요한복음 13:2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넣었다. 생각이 무너지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도 얼마나 가룟 유다를 안타까워 하셨는가.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할 것이 많다. 질풍노도의 시기 아닌가. 요즘은 하도 부모에게 잡혀 있으니까 못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참 많을 것이다. 마음, 생각을 지키시기 바란다.

결론을 맺겠다. 내가 히로시마에 선교사로 간 후에 부러운 것이 있었다. 1년에 한두 차례씩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청년부들이 캠프를 다녀가는데, 이런 램프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와이프와 항상 했다. 오늘 왔다가 간 후우카, 도모코 청년들도 있지만, 히로시마참사망교회에도 캠프와 같은 램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세계 곳곳에서 램프대회에 참여했는데, 다음 대회에는 히로시마에서도 램프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역이고 미래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다. 유치원 때부터 초등부를 지나서 중고등부, 대학청년부에서 자란 분들이 중직자가 될 것 아닌가. 또 후대를 키우는 교사가 될 것 아닌가. 여러분이 교회의 주역이요 미래임을 잊지 마라. 일본은 교회에 미래가 없어진지 오래 되었다. 8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청소년이 없다. 대학청년도 많지 않다. 8천여 교회에서 70% 이상이 60대 이상의 목회자들이다. 이들이 10년 후에 다 은퇴하고 나면, 8천여 교회의 2/3가 목회자 없는 교회가 되어 버린다. 여러분이 참사랑교회, 한국과 전 세계 교회의 주역이 되시기 바란다. 히로시마로도 건너오시기 바란다. 그게 램프 운동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존심이다. 내가 마음에 무엇을 지켜야 하며, 지금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말씀 기도 전도와 선교에 올인 하게 되시기를 축원한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맡겨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청소년, 많은 성도들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가고 풍요롭고, 살기 좋아져가지만,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후대는 소망이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중고등부원신예대로 모인 참사랑교회 청소년들을 축복하사, 청소년 때부터 복음을 붙잡고 말씀 기도 전도에 올인하며, 교회와 시대와 후대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기르는 교사, 부모,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직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